

불자 세상보기



송재운
실버타임즈 편집인
前 동국대 명예교수

지난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 동안의 장기적인 철도노조 파업을 지켜 보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은 많은 것을 느꼈다.

우선은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등 더불어 공익사업 중의 공익사업인 철도 사업 종사자들이 계속되는 불안한 안보상황 속에서 연중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이처럼 전면 파업으로 국가의 대동맥을 마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무리 6.7%의 임금인상과 철도민영화(수서발 KTX 운영사)반대가 시급하다 할 지라도 꼭 이런 방식으로 바로 이때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국가 산업과 기강을 이처럼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들의 행동은 철도노조를 애국심이라곤 손톱만치도 없이 오직 광기어린 집단이기주의만 존재하는 집단처럼 보이게 했고, 그 저의마저 의심케 했다. 철도노조의 이 같은 파업은 단순한 노동쟁의로만 보기엔 너무나 정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업엔 민노총, 통합진보당원(의원포함), 좌파시민 단체들이 합세하여 더욱 기세를 부리며 앞장서서 현 정권을 매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구호를 난발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철도 파업을 어떻게 노조법 1장 1조가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정의의 행위로 볼 수 있겠는가!

누가 봐도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은 정치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 그 파업이 국회에 '철도노조발전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종결된 것 자체가 이를 입증하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실록 정치투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철도노조의 무한대한 탐욕(貪慾)과 집단이기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임금과 대우가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임금수준을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특혜한 전면 파업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평등의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도 가난한 이웃의 눈치를 보며 산다. 그렇다면 그 부자는 마음속에 최소한의 평등적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바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국영기업 종사자들이 열악한 임금이 생계를 잇기 어려운 이웃들의 가난한 월급쟁이 생각도 해가면서 자기를 봉창을 불러야, 이것이 타인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빚(負債)이 17조

6천억, 이에 대한 하루 이자만도 12억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들 직원이 받는 연봉 6천 3백만 원은 순전히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국민을 생각하는 안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릴 이익 챙기만 주장한다면 누가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겠는가!

한국철도공사(KORAIL) 직원들이 받는 대우를 보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전술한대로 6천 3백만 원, 그리고 다음은 그들이 받는 일종의 특혜.

- 1) 7급에 입사하여 3급까지는 자동 진급. 2) 직원자녀 전액 유학비 지원. 3) 직원 자녀 우선 채용. 4) 가족 해외 경비 지원. 5) 가족포함 직원, 철도 병원 무료. 이런 혜택을 받는 직장이 대한민국에 몇이 나 될까.

또 한국철도공사의 운영 실태 자료를 보자.

서울-부산 간 고속버스 요금은 23,000원, 운행 시간은 4시간이다. 그러나 새마을호는 요금이 47,000원, 운행시간은 4시간 30분이다. 고속버스보다 요금은 두 배이고, 운행시간도 더 걸린다. 서울-부산 간 KTX 요금은 57,000원(일반실), 특실 요금은 항공료와 비슷한 80,000원이다. 그리고 서울역 부산역 등의 창구에서 근무하는 대표원의 연봉은 6,300만 원이다. 비행기 조

종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철도 기관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이라고 한다. 철도 기관사가 서울역에서 KTX 운전대를 잡으면 동대구역에서 기관사가 교체된다. 이렇게 보면 철도 기관사는 하루 근무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자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대표원 같은 것은 연봉 3,000만 원만 줘도 해도 우수한 청년 실업자들이 줄을 설 것이다. 대표원이 6,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각종 특혜를 받는 철도노조원들이 일부 종교계나 청취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사회적 약자들인가? 묻고 싶다. 그렇다면 하루 몇 만원씩 받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떤 계층에 드나. 힘 있는 노조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탕발림 수작도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철도를 비롯한 우리의 국영기업들이 진 빚은 무려 500조 원이라 한다. 그냥 두면 IMF 사태를 또 불러올지도 모른다. 고속버스는 민영이라도 서울-부산 간의 요금이 철도의 반밖에 안 된다.

공공기업의 대 노조들이여! 새해부터는 제발 탐욕을 버려라!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부대중 칼럼



정관 스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요즈음 14번째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 15분경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로 “얼굴 없는 천사 비석” 뒤에 박스를 두고 가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는 짧은 말을 남기며 전화를 끊었다.

이 “얼굴 없는 천사 비석”이란 노송동 주민센터가 2000년부터 기부를 해온 이 인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비석이라고 한다. 전화가 온 당일 직원들이 천사비석 아래를 확인했을 때, 그 곳에는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

요”라는 글과 함께 4924만 6640원이 봉여있었다고 한다. 이 ‘14년 째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돈은 지금까지 총 3억 4699만 7460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매년 이맘때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거액을 내놓는 몇 년째의 그의 행동을 세간에 이목을 탄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에 하는 공금증을 자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 기부천사가 녀석해서 해마다 기부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한다. 기부부 조금만 하고서도 사진 찍고 알리고 하는 세상에 본인을 밝히지 않으므로써 진정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말로는 쉽게 이야기하겠지만 선뜻 큰 금액을 내놓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소외된 이웃을 조금이나마 훈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얼굴 없는 기부천사 같은 분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세상이 밝고 깨끗해지기를 기원해본다.

혹시 ‘노노(老老)케어’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는가? 말 그대로 ‘노인이 노인을 돕는다’는 뜻을 지닌 이 단어는 더 이상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만 인식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와 뜻을 함께하는 ‘노인이 노인을 위해 펼치는 다양한 사회 나눔 활동’들이 진행되며 훈훈한 겨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복지관을 5년 이상 꾸준히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임인 ‘종로마니아’ 회원들에게 우리가 사회에서 받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돼지저금통 하나씩을 드렸다. 연말행사에 하나 둘씩 모인 저금통 전액은 겨울을 나기가 힘든 어르신의 난방비로 사용됐다. 지원을 받은 어르신과 저금통을 모은 어르신들이 모여 훈훈함을 느끼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밖에 어르신들은 직접 만두를 빚어서 쪽방에 계신 어르신들 전달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씩

손을 놓았던 취미들을 복지관에 오셔서 되살리기도 한다. 모자와 목도리를 떠서 힐링계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건네 주는 가 하면, 다문화 시어머니와 남편, 자녀들의 뉘까지 챙긴 선물을 꾸러미에 넣어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 역시 복지관과 지역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환원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인 JOO수 어르신은 종로마니아 활동을 계기로 2011년부터 정부에서 보조받는 수급비 중 일부를 매월 복지관에 정기후원 해 우리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각박한 현실에 얼굴 찌푸릴 일도 많지만,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봄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 문화에 동참하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나눔 문화가 각박한 사회를 따뜻하게

종교방송 뉴스 보도 막아서서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 조사를 두고 각계 반발이 거세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는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 목록이 포함됐으며, 실태조사 기간 중 사업자 스스로 편성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는 표현도 담겼다.

한국PD연합회는 1월 2일 즉각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노골적으로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보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한 방송사는 BBS 불교방송 등 지상파 종교방송 4곳과 케이블 경계·종교 방송사 13곳 등 총 17곳이다. 방송심의의를 통한 사후 규제도 하면서, 비판 기능을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분명 구

태의연한 일이다. 정부의 허가라는 제도에 따라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보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 제도가 가진 미비점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특정 방송사나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불교방송과 같은 경우 지금까지 25년동안 용인하다가 방통위가 이제 와서 제재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처사기 때문이다.

방송의 역사성과 법제도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라면 이를 계기로 종교 방송 등이 뉴스채널 방송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방통위는 무엇이 공익인 방송을 위한 길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물신 사회 치유는 종교의 의무

한국 사회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종교가 가지는 중요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구립 18일 발표한 ‘2013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행복을 위한 기대 조건 가운데 종교를 가장 하위에 두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건강으로 10점 만점에 9.4점이었고 종교생활에 대한 중요도는 10점 만점에 5.7점에 불과했다.

한국인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실제 2012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종교가 사회 치유 역할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42.7% 부정적인 의견을 내렸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0% 달했다. 종교 단체에 대한 신뢰도 5.4% 정도였으며, 종교 단체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는 다수인 76.6%가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는 물신화로 가고 있는 사회에서 범계 행위, 교회 세습 등 종교도 세속과 다르지 않음을 종교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종교의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지적의 요지다.

물신화 시대에 대한 치유는 종교의 몫이다. 하지만 종교가 가지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대중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종교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도덕성과 청렴성 등으로 조사된 만큼 종교 본연의 자세를 지켜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종교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대중을 이끌 수 있어야 하며, 바른 믿음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발샵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렵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묘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 天造明堂**을 구求하라!

★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 地造明堂**을 구求하라!

★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 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체(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여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祕)한 베일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인쇄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스팹호)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신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신비롭게 기쁨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승하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나의 이력서와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화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 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사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6쪽 / 정가 7,000원